

데스크 시각



장 필수 전남본부장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지나고 모두들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 일상이 어떤 이예겐 직장이고 어떤 이예겐 조그만 구멍가게일 것이다. 돌아갈 곳이 없는 백수 일지라도 무리한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유독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천공항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1분에 한 대꼴로 비행기가 이륙했다. 206만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국내 여행지도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넘쳐났다. 돈을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긁었고 국내에서 돈을 쓴 사람들도 재래시장보다는 쇼핑이 편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갑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소비 진작을 유도했지만 영세 지역

청년 그리고 정치라는 블루오션

업자들은 오히려 장사가 안 됐다고 아우성을 칠 만하다. 만남이 잦아지는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이다. 이번 추석에도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화두였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은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이나 결혼 적령기의 조카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는 말조차도 꺼내기란 쉽지 않았다.

추석 민심 ‘새 인물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식탁에 올랐다. 누가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거나 거론되는 후보를 놓고 ‘2강 3약’이니 하면서 판세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저런 대화 속에 이견도 있었지만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사실엔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거물급들이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는 광주에선 구청장들이 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으니 이들 구청장 후보군까지 포함하면 그나마 새로운 인물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단체장이 3선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구속돼 권한대행 체제인 시·군은 입지자는 많

은데 신선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도 기초·광역 의원, 퇴직 공무원들이 대다수이고 심지어 전직 시장과 군수가 재도전에 나선 곳도 많다. 전문가 그룹이나 30~40대의 젊은 야심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 것일까. 무엇보다도 정치가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 탓이 크다. 고향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표면 생각하는 근시안적이고 소신 없는 행정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렸다. 잇속을 챙기기 바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는 무관심을 넘어 정치 혐오를 낳고 있다. 민선 6기에서만 전남 지역 3개 시·군 단체장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돼 있고 무리한 행정으로 인한 소송전으로 민심이 갈가리 찢긴 곳도 있다. 3선을 했다고 자랑스러워 하기보다 지난 11년 동안 무엇을 남겼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단체장도 있다. 지난해 사석에서 만난 고위 관료 출신의 3선 단체장의 말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 있는데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조용히 입기를 마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취향에 열중해 있었고 그 자치구는 가장 낙후된 곳

으로 머물러 있다.

정당에서 젊은 인재 양성을

이 시점에서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의 말이 떠오른다. 그는 전국적인 명성으로 정치 입문 권유를 받고 있지만 정치인이 되기보다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정치의 역할이 큰데도 청년들이 무관심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역발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는 말이었다. 정치만 한 블루오션이 없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 청년들이 정치에서 꿈을 키우게 하고 싶다고 했다. 준비된 젊은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란 소신이었다. 그의 말처럼 청년들에게 정치가 블루오션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유소년 축구팀→성인축구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었듯이 지역 정치에도 청춘→성인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천을 앞둔 정당들은 새 인물이 없다는 추석 민심을 되새기고 차체에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강 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요즘 어느-TV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가 인기다. 특히 50대 이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필자의 아내도 케이블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 ‘미운 우리 새끼’만 나오면 이미 본 내용인데도 재 시청을 하며 재미있어 하는 걸 자주 본다. 내용을 보면 왕년의 인기 가수 김건모, 이상민, 방송인 박수홍, 토니안의 어머니들이 나와 싱글인 아들들의 일상을 지켜보며 패널들과 함께 한마디씩 하는 가족 테마 방송이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이 프로그램이 중년 아주머니들 사이에

‘미운 우리 새끼’와 현실

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재미를 유발하는 다른 오락적인 요소들도 있었지만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결혼 적령기를 넘긴 싱글 자녀가 그만큼 많으며, 이를 지켜보는 엄마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는 얘기일 것이다. 예를 들면 가수 김건모의 기발하면서 한심(?)한 일상을 보며 무심코 내뱉는 건모 엄마의 “가지가지 한다.”라는 한마디에서 세상의 엄마들은 동병상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신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980년 38만 명(4.8%)이던 1인 가구는 2010년에 414만 명(23.9%)을 넘어 2016년에는 540만 명(27.9%)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을 학자들은 대체로 개인주의 심화, 남녀평등 의식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정보 통신을 이용한 소통 수단의 발달 등을 꼽는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고학력 사회의 어두운 명암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68%로 최고이며 다음이 캐나다 58%, 영국 48%, 일본 37%, 독일 28% 순이다. 이러한 고학력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 이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대출 인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이제는 7포 세대(연애, 취업, 결혼, 출산, 주택구입,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양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때문이다.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 낮은 영국이나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봐도 고학력인 우리나라가 결코 잘 살거나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이룬 고학력이 오히려 취업과 결혼을 저해하고 1인 가구를 양산하는 모순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취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고학력 자존심만 아니라면 전국에 산재한 농공단지과 지방 산단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의외로 많다. 우리 청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이에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장가 못한 노총각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여성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외국인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을 떨어뜨려 고령 사회를 부채질하고 더 많은 주택을 필요케 하거나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개인에게는 단절과 고립을 자초하여 무연 사회의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나마 젊어서의 고독은 여가 생활로 풀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의 고독은 어두움 그 자체이다. TV 속의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서 그레도 그들은 소득과 노후가 보장된 행복한 1인 가구들이기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비해 소득과 노후가 불투명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진짜 ‘미운 우리 새끼’들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없으니 그것이 문제이다.

社說

‘5·18 가해자 면책’ 많은 제보로 이어지길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5·18 관련 양심선언자(증언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용서하는 한편 법적 포상을 추진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5·18 미완의 과제인 집단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에 대한 제보나 양심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면책·포상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도 합당하다는 데 뜻을 모아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진실을 증언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감경) 또는 포상을 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37년 동안 5월의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인성을 바쳐 온 5월 단체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이 이제 발표 당사자일지

라도 양심선언이나 핵심 증언을 한다 면 용서는 물론 포상까지 해 줘야 한다는 너그러움으로 바뀐 것이다. 계엄군 총지휘권자가 아닌 바에야 발표자나 암매장 담당자일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양심선언한 해 준다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갖겠다는 게 5월 단체 회원들의 진심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미 군사정부 시절의 암매장 발굴이 대부분 가해자 제보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국회는 5월 단체들의 요구대로 제보자에 대한 면책·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5·18특별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의 남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5월 단체 회원들의 넓은 아량에 박수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1980년 5월 당시, 시민을 향해 직접 발포했거나 발포 명령의 지휘상성에 있었던 계엄군, 또는 암매장에 참여했던 계엄군의 많은 제보가 있기를 바란다.

한미FTA 개정 협상, 지역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철강, 농업 분야도 타격이 우려된다.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목된 자동차와 철강 업계는 이미 조건장 상태다. 한미FTA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관세율이 2.5%인 일본산이나 유럽산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개정 협상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한국 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광주 공장도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30억5000만 달러 가운데 미국이 71%를 차지했다. 철강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올 상반기 17억4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했다. 연간 산업인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국내 철강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미국이 절대 우위를 보이는 농업 분야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농·축·임산물 수입액은 71억8200만 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7억1800만 달러의 10배를 웃돈다. 그럼에도 미국은 농산물 수입관세 즉시 철폐 등 추가 개방을 요구할 태세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흥역을 치른 국내 산업계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대형 약재를 만났지만 이렇다 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하지만 농수 분야는 경우 미국·EU·영연방·중국 등 주요 FTA에 따른 생산 감소액이 전남 지역만 매년 2000억 원을 넘는다. 더욱이 한미 간 농축산물 무역 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철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부각시키고 정부와 정치권 및 산업계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금은 한남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 박근교 전 대통령과 같이 여성으로서 국가 정상에 오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화제를 끌고 다닌다. 그녀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최근 4선 연임에 성공하며 견제를 과시했는데, 재임 기간 독일은 다시 유럽의 정치·경제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유럽에서 독일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심(公共心)

독일이 패전과 분단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렇게 ‘잘나가는’ 이유를, 1807년 7월 틸리츠(Tilsit) 조약 후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1세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프로이센은 영토의 절반을 내놓아야 하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수상인 슈타인(Karl von Stein)이 내건 대표적인 개혁 조치가 ‘시제(市制) 실시’였다. 이 시제는 국가 행정의 지방 이양 또는 위임과 지방 행정에의 시민 참여를 양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심(公共心), 즉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을 배양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슈타인은 믿었다. 그의 시도는 이후 발전을 거듭해 지방자치 선진국이자 강대국 독일의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분단 현실과 중앙집권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에 머물고 있다. 으며, 그 결과 주민의 눈은 자신의 주변이 아닌 먼 중앙만 바라보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거대해질대로 거대한 중앙권력과 자본을 얼마만큼 지방에 남길지는 미지수다. 지난 추석 연휴에 보니 여기저기 가로수나 전봇대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선 입지자들의 인사 플래카드가 걸렸다. 중앙에 맞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내고,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닦을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 고



배 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가을빛이 참 곱다. 들녘에서 어머는 황금빛 벼, 조붓한 길 따라 흰 코스모스와 은빛 억새, 그리고 하늘의 청명함까지... 자연이 오랜 시간 묵혀 뿜어내는 가을 빛깔들과 마주하며 황금 연휴를 보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은 가을 빛깔처럼 곱고 반가운 사람들이다. 모두가 삶의 짐을 지고 각박한 오늘을 살아 가지지만 한가위만큼은 넉넉해지고 싶은 마음이라. 친구들을 만나 힘겹게 살아온 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들을 기억했다. “도시 살아가 힘이 부치기는 허다야.” 사업에 실패한 친구, 이혼한 친구,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 친구, 모두의 목은 사연들을 듣자니 마음 한 편이 저러고 아팠다. “아무리 살아보려 몸부림쳐도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목수를 찾습니다

수 없네. 그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게 가장 두렵다”는 말을 듣고서는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돌봄 이웃(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어떠하랴?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가진 재물뿐 아니라 재능을 기부한다면 우리는 분명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을 터다. 더 나아가 이웃들의 아픔을 공유한다면 광주는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지난해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저서 ‘더불어 숲’에는 사랑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하얀 안개꽃 가운데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꺾으면 안개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라는 질문에 사랑의 가장 정직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며 “함께 핀 안개꽃”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의 ‘더불어 숲’이라는 공명의 메아리는 생체가 난 이웃들(안개꽃)과 함께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길을 만들라는 뜻일 것이다. 광주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안개꽃’ 정책들을 집중 발굴해 실천하고 있다. 필자의 부서(건축주택과)의 ‘행복한 목수’주제 리모델링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운장현 시장의 민선 6기 공약 사업으로 독자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첫 삽을 떴다. 돌봄 이웃의 주거 환경은 기본적으로 노후 주택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수가 되지 않아 벽과 장판에 곰팡이가 스는가 하면, 창틀이 틀어져 외풍이 심하고, 주방과 화장실도 불결하고 악취가 난다. 그동안 행복한 목수봉사단의 재능기부로 모두 126가구(2014년 43가구, 2015년 36가구, 2016년 4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40가구를 목표로 독자어린,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부방도 개선된다. 대상가구 선정은 개인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봉사단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는다.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되는 복지 사각지대, 즉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게 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행복한 목수 봉사단’의 재능기부와 시민 참여로 공사가 진행된다. 15번째 대상자로 6·25 참전 유공자인 이형돈

씨 집이 선정됐다. 50여 년 동안 보수를 못한 이씨의 집은 곳곳이 생채기가 나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건축자재 특화의 거리 상인회’는 철거를 도맡았고, 장관의 경미한 보수부터 창틀 교체, 화장실, 주방, 개보수까지 전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말끔하게 정비되었다. “남은 집을 고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적을 본 것 같다. 새 집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며 환하게 웃던 ‘이재’의 모습이 기억을 스친다. 행복한 목수들이 그러는 재능기부의 삶이 이렇듯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고 하지만 행복한 목수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내놓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기부를 통해 봉사자들도 스스로 보람을 얻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 서로 돕고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광주정신이 아닐까... ‘이토록 눈부시고 맑은 가을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갈 빛고를 광주의 행복한 목수를 찾습니다. 지금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그 아름다운 목수일 수 있습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고,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FAX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